

## [ 사회 ]



승원 결산 2題

행복하고 아쉬웠던 한여름 밤의 축제

## 광주시민 자긍심 보여줬다

## 사건·사고없고 청소 말끔

행복과 아쉬움이 함께 한 6월 이었다. 열광과 흥분으로 시작했던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는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이라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제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시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밤을 새며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쳤고, 거리는 ‘붉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태극전사들의 선전으로 4천800만 ‘붉은 암마’는 보름여동안 모든 근심을 떨쳐내고 즐거움을 만끽했다.

본선 첫 경기인 토고전에선 대한민국 역사상 원정 첫 승리라는 사

실에 감격했고, 세계 최강 프랑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박지성의 극적인 동점골에 벌떡 일어났다.

온 시민이 참여하는 길거리 응원은 ‘한여름밤의 축제’였다. 날을 꼬바 새 몸은 피곤하지만, 태극전사들의 선전으로 원정 첫 16강 진출이라는 기대감에 모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토고·프랑스·스위스 전 등 연인원 20여만명이 참여한 길거리 응원은 광주시민들의 자긍심도 엿보이게 했다. 폭력·소매치기·성추행 등 사건·사고나 불쌍사나 운 일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까지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증

광주·전남 8개 시·군 올 608명…2004년의 2배

##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허위신고 갈수록 늘어

실업급여 대상이 최근 일용근로자에게 확대되면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일수를 속여 급여를 받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센터장 김규석)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나주를 포함한 전남의 8개 시·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608명(5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4년 357명 ▲2005년 66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고용안정센터는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원인을 지난 2004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고용보험법(제31조)은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흘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들이 근무일수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2004년 139명 ▲2005년 2천106명 ▲올해 5월 말 기준 2천 6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총합고용안정센터는 다음달 21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정수급액의 2배)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실업급여=근로자가 이직 등의 이유로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 액수는 실제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이며, 일일 최고액은 4만원이다.

했다.

고용안정센터 최일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은 “4대 사회보험의 전산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부정수급자 적발이 쉬워졌다”면서 “지난 1월부터는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 “이젠 무슨 낙으로 사나…”

분노…은둔…방황…

## 월드컵 후유증 다양

“이젠 무슨 낙으로 사나?” 한국축구 대표팀의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열성 축구 팬들을 중심으로 월드컵 후유증이 카지고 있다.

▲분노 표출형=FIFA 홈페이지에 접속해 심판의 오심을 성토하고 재경기를 요구하고 있다. 각 포털사이트를 찾았더니며 댓글을 남기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디 ‘jalsun’은 ‘태극전사들의 땀과 눈물을 심판의 오심 때문에 날려버렸다’면서 “그게 월드컵이나 봉드컵이지”라고 비난했다.

동료나 친구와 함께 매일 밤술로 보내는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도 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잠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등 응원 구호의 환청(幻聽)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적에 고무된 듯 이번 독일에서도 당연히 16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확신에 빠지는 등 ‘데자부’(De ja vu, 既視感)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방황형=대학생 등 젊은층은 뛰거렸던 거리 응원 현장을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다. ‘붉은 암마’ 티셔츠와 뺨 등 도구를 행거들고 전남대 후문과 월드컵 경기장 등을 찾아 생생했던 당시를 회상한다.

대학생 전모(22)씨는 “버스를 타고 거리 길거리 응원이 진행됐던 전남대 후문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점도”라며 “가게에서 들어오는 응원 노래가 흘러나오면 조용히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은둔형=월드컵이 보기 싫다고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직장인 김모(44·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TV를 보면 월드컵이 중계돼 괜히 더 성질만 난다”면서 “거실에 있는 TV 코드 선을 없앴다”고 말했다.

동료나 친구와 함께 매일 밤술로 보내는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도 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잠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등 응원 구호의 환청(幻聽)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적에 고무된 듯 이번 독일에서도 당연히 16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확신에 빠지는 등 ‘데자부’(De ja vu, 既視感)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방황형=대학생 등 젊은층은 뛰거렸던 거리 응원 현장을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다. ‘붉은 암마’ 티셔츠와 뺨 등 도구를 행거들고 전남대 후문과 월드컵 경기장 등을 찾아 생생했던 당시를 회상한다.

대학생 전모(22)씨는 “버스를 타고 거리 길거리 응원이 진행됐던 전남대 후문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점도”라며 “가게에서 들어오는 응원 노래가 흘러나오면 조용히 “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하나됐던 뜨거운 밤

독일 월드컵 한국 대표팀과 스위스 대표팀 간의 G조 예선 마지막 경기가 열린 지난 24일 새벽 전남대 후문 앞. 길거리 응원에 참여한 3만여명의 ‘붉은 암마’가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중국문화원 28일 개원

## 대인동 화교학교내 전시실 등 갖춰

광주시에 중국문화원이 문을 연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동구 대인동 신평회관 화교학교 내에서 중국문화원이 개원식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개원식에는 주영지(朱英傑) 주한 중국문화원장 등이 참석한다.

/관련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 중국문화원은 150평 규모로 전시실과 도서자료실, 영상실 등을 갖췄다.

광주 중국문화원은 ▲한·중 문화 및 학생 교류 ▲중국어 어학교실 운영 ▲문화 전시회 ▲영화 상영 ▲예술단 초청 공연 ▲학술행사 등을 통해 광주와 중국간 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 중국문화원에서 중국 비자는 발급하지 않는다.

한편 한·중 양국은 올해 말까지 광주에 광주·전남·북·제주지역을 관광하는 영사(領事)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현대직업전문학교

전남여고전너편(구MBC) ☎ 224-4560

## 정보화기초과정

- 고용보험재직자 100%환급
- 웹툰, 인터넷검색, 파워포인트
-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자격증

## 공무원시험가산점과정

-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자격증

## 부동산경영실무 1.2

- 자비유료 및 고용보험재직자 80%환급

공인중개사	아간반	주택관리사
주말반		

## 현대직업전문학교(자매 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3-2467

## 제3회 농산물물류관리사

- 농림부인정의무체육자격증
- 개강 7월 5일(주말반·주중야간반)
- 1,2회 기존합격자 전원취업완료

## 2006년 제2회 직업상담사

- 노동부인정의무체육자격증
- 개강 7월 8일(주말반·토/일)
- 합격생전원 100% 취업알선

## 잔뜩 찌푸린 하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겠고 새벽 한 때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6월 26일

(음 6월 1일)

◇전국날씨

주	폭	여수	원도	구	해남	장고	순영진	전주	남원	정읍
흐림	흐림	흐리고 비	흐림							
19~27°C	19~25°C	19~24°C	19~26°C	19~28°C	18~26°C	18~25°C	18~28°C	19~28°C	19~28°C	19~28°C
서해										
1.0~1.5m	1.0~2.0m	1.0~2.0m	1.0~1.5m	1.0~2.0m						
남해										
제주										
제주										

## 여름방학 대특강

개강 7월 3일

주간/야간반 운영

6월 수시 접수종

공무원시험 새로운 무등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수많은 공무원이 무등출신입니다.

무등고시원 222-4560

## 인터넷 모의고사 무료

본인 성적 확인하시고 상담을 해시면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재

인터넷 모의고사 무료

인터넷 모의고사 무료